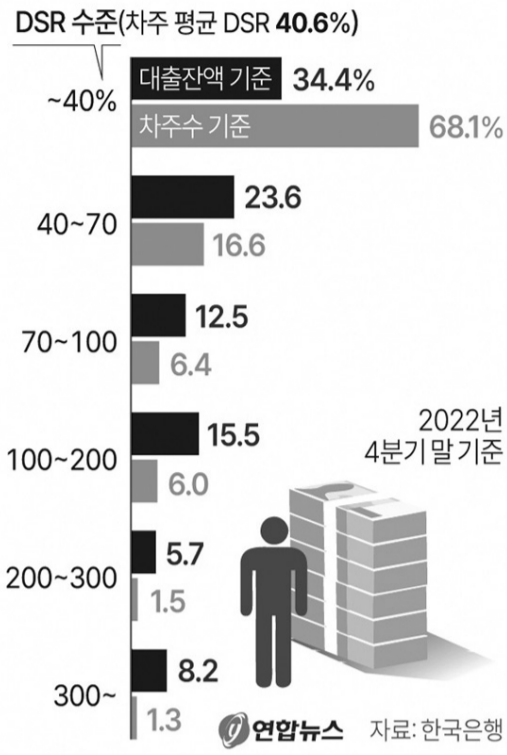


대출 갚는데 월급 40%...원리금상환비율 주요국 2위

가계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별 비중



DSR 4년 만에 40% 넘어서...7명 중 1명 원리금상환에 소득 70% 사용
연체율 올해 1.0% 상승 전망...고위험가구 부채비율 159%로 높아져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년 만에 40%를 넘어서었다. 전체 차주 7명 중 1명은 원리금 상환에 소득 70% 이상을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 말 1.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23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분의 부실 위험과 DSR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취약차주, 이미 월소득 67% 원리금 상환에 써=한은 분석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집계됐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가계대출 차주 평균 DSR이 40%를 넘는 것은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4분기 새롭게 대출을 받은 신규차입 차주의 DSR은 17.3%로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 전인

2020년 4분기(23.8%) 대비 하락했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 차주의 DSR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33.8%에서 38.4%로 높아졌다. 가만히 있어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진 셈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8.1%(대출 비중 34.4%)는 DSR 40% 이하에 분포했다. 그러나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차주가 7명 중 1명뿐인 전체의 15.3%(대출 비중 41.9%)였고, 100%를 초과해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은 차주도 11명 중 1명인 8.9%(대출 비중 29.4%)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는 4분기 기준 전체의 6.3%로, 이들의 평균 DSR은 66.6%에 달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소득·지출대상) 자료를 토대로 차주 기준이 아닌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을 추정한 결과 29.4%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DSR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7%로 호주(14.9%)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코로나19 이후 상승 폭(2019년 말 대비+1.5%포인트)도 가장 컸다. ◇"가계대출 연체율 올해말 1.0%로 상승"=한은은 이처럼 가계 전반의 부실위험은 낮지만, 향후 채무상환 부담이 과도하고 자산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DSR이 40%,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모두 상회하는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이후 이자 부담 증가, 자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들 고위험가구의 평균 DSR과 DTA는 2021년 101.5%와 131.6%에서 올해 2월 현재 116.3%와 158.8%로 크게 상승했다. 고위험가구는 2월 현재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0%, 금융부채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가구의 평균 금융부채 규모는 2억5000만원으로, 비고위험가구(1억원)의 2.5배였다. 한은은 고위험가구 중 30일 미만 단기 연체경험 가구(고위험가구의 6.9%), 연체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가구(고위험가구의 5.3%)가 점차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변화를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0.66% 수준에서 올해 말에는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여전히 장기 평균(2009~2022년 중 1.3%)을 밑도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향후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와 연체 관리에 힘써야 한다"면서 "DSR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 및 고점리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말뉴스

JB노조, 얼라인파트너스 과도한 배당 확대 등 주주제안 반발

광주은행 노조 등 성명서 발표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속해 있는 'JB노동조합협의회'는 최근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하 얼라인)에서 제시한 배당 확대와 금융사 출신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JB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주주행동주의자의 탈을 쓰고 회사의 미래를 갉아 먹으려는 얼라인파트너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자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지역민과 상생을 저해하고 고객과 임직원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는 악덕 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주제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기업과 주주, 더 나아가 지역민과의 공생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500만 전라도민과 4000여 JB가족들은 함께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주주행동주의 역할에 대해 선진적 주주환원정책 도입에 앞장서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에 반해, 여론몰이를 하며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기차익만을 노릴 수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주제안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순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JB금융지주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속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은행은 폭넓은 지역 공헌 및 지역 환원을 통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공공

재'로서의 다채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할은 지방은행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역할일 뿐더러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사항은 '지역 공생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당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오직 자신들의 단기수익 추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JB노동조합협의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을 중심으로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야 영속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 "본질적 미래 기업 가치를 중시하며 일부 주주의 욕망과 속셈에 휘둘리지 않도록 김기홍 회장과 JB금융지주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탄소저감 실천' 나무심기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근린공원 등에서 탄소저감 실천과 산림보전을 위한 범농협 '6만100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TP, 치매 데이터 활용 연구센터 만든다

예측·진단·치료 기반 구축...다음달 착공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 이하 광주TP)가 '치매코호트 멀티모달 데이터적용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광주TP는 23일 광주시를 비롯한 사업 수행기관인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원광대병원, 기업·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년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0억원(국비 100억원·시비 40억원, 민자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다양한 치매 관련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테스트 할 수 있는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치매 예측·진단·예방·치료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 28개사에게 데이터 활용, IRB 계획 수립 및 연구자임상, 제품실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특히 광주TP는 다음달 2단지 부지에 치매기술센터(가칭) 건립공사를 착공한다.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센터 건물 내에는 치매데이터 수집·분석·실증평가 장비 등을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 관련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형태를 통해 검증한 1만6000여명의 치매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



치매기술센터 조감도.

해 지속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치매 위험도 분석과 예측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서울성모병원·원광대병원은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을 통해 제품의 유효성, 안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집 원장은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약 5000만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발생률 증가로 2050년에는 1억30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의료계와 산업계간 협력 체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 기반 실증사업으로 광주가 치매의 예측·예방·치료 실증 성공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당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